

주제회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도시의 자연: 기후위기에 대한 필수적인 솔루션

샤론 셀바지오

[무척추동물 보호를 위한 저시스 협회 살충제 프로그램 전문가]

2022년 7월 UN 총회에서는 인권으로써 청정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류의 보건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키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촉발된 본 결의안에서는 인류의 웰빙은 건강한 환경과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전 세계 생물 종의 약 8%는 곤충이며, 동물에 속하는 그룹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곤충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며(수분, 해충관리, 야생 동식물의 영양분, 그리고 배설물 매장 등), 최소 700억 달러 규모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까지도, 곤충은 대부분 무시되거나, 많은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에서 수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곤충과 더욱 다양한 곤충들을 보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분 매개체로서 곤충을 보호하고, 도시와 마을 내에서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있는 미국의 혁신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 어느 도시에서건 활용할 수 있는 달성가능한 서식지 프로젝트, 살충제 사용 감소 방안, 및 교육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보존 노력은 기후 파괴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